



국제 펄프가격 급상승 추세 3월에 톤당 825불 났듯,

북미 및 북구 펄프제조업체들이 세계 수요증가세를 이용, 작년 1년동안 6차례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국제펄프가격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펄프제조업체들은 국제펄프가격의 표준이 되는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가격을 금년 3월에 톤당 750불에서 825불로 추가 인상한다고 수요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펄프제조업체들은 이미 금년 1월 1일부로 톤당 700불에서 750불로 펄프 가격을 인상한바 있는데 3월 펄프 가격을 추가 인상함으로써 지난 89년 840불의 최고치에 근접하게 되었다. 국제펄프가격은 93년 중반만 하더라도 톤당 390불에 불과했다.

최근에 이러한 국제 펄프가격 급상승세는 주로 유럽 및 극동지역, 중동에서의 수요 급증 및 영국, 콜롬비아지역에서의 생산감소 등에 기인하며 또한 Fletcher Challenge Canada사 소유의 3개 펄프제조공장이 노사분규로 최근 3주간 생산을 중단했고, 몇몇 주요 펄프제조업체들도 기술적 문제로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제 펄프 수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펄프제조업체들은 금년말에는 국제가격 인상폭이 현저히 둔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보스톤의 Resource Information Systems사의 David Pinneault 연구위원은 NBSK(침엽수 표백 크라

프트 펄프) 가격이 금년말에 유럽지역의 재고가 증가하고 국제 펄프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톤당 700불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규모 펄프생산업체인 Repap사의 Michel Valois시장개발부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증가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코팅종이의 적체주머니 미국에서만 230만톤이 넘는다고 주장, 연말에는 단지 인상된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U, 화학업계 한국산 필름 반덤핑 제소 93년 EU 수출 2,900만불

EU화학업계가 이미 지난해 12월말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HS392062)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EU집행위에 제출했으며, 현재 EU집행위는 실무선에서 제소장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집행위 실무선에서는 수주내로 제소장에 대한 검토를 마친후 반덤핑 조사개시안을 브리튼 대외문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EU집행위는 브리튼 집행위원의 승인을 받은후, 이를 회원국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EU집행위는 최근 개최된 반덤핑 자문위원회에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안을 의제중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주로 광천수, 청량음료용 용기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한국은 EU 회원국에 지난 91년 2,500만불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수출했으며, 92년에는 3,800만불로 대폭 수출이 증가한 뒤 93년에는 2,900만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수출이 늘어나자 EU업계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했으나 무피해 판정으로 반덤핑규제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업계는 이번에도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EU업계와 사전협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도, 석유화학분야에 대규모 투자 15년간 1,200억불

인도 정부는 향후 15년간 석유화학분야 특히 원유개발 및 채굴, 원유

(단위:만톤)

회사명	지역	정제시설능력
Reliance Petrochemicals	West Coast	900
International Petroleum SA of Switzerland	Gujarat	500
Ashok Layland & Gotco	Orissa	600
Essar Investment	West Coast	900
T.R. Dalta(Black Gold Refinery)	Andhra Pradesh	250
Promoted by Non-Resident Indians		
Petrodyne Inc. of USA	Pondicherry	500

정제, 원유보관, 수송 등 석유화학 인프라 개선에 대한 외국 및 국내 민간기업의 유치 확대를 통해 1,20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도는 경제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91년전까지만 해도 원유개발 및 채굴, 정제, 유통제 수입 등 석유화학산업 주요분야의 경우 오직 인도 국영회사들만이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진출을 제한해 왔으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석유 화학산업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의 유치 확대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의 경제개혁정책 추진이후 원유정제(Refining) 시설의 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은 표와 같다.

현재 외국기업들의 인도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출이 활발한 분야는 유통유 및 원유정제 분야이며 원유개발 및 채굴의 경우는 미미한 편이다.

日, 후생성·통산성 VS 농수성·국세청 포장 폐기물 긴급 집회를 개최하다

'당신이라면 포장 폐기물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테마를 갖고, 1월 19일 동경 千代田區에 위치한 중의원 제 1의원회관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다. 지구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과 의원의 모임이 주최한 것이다. 이 회의는 시민단체와 의원, 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되었다.

집회는 코디네이터에 畠本勝美·와세다대학 교수, 패널리스트로서는 三本木徹·후생성 환경정비과장, 小

川恒弘·통산성 재자원화대책실장, 神村義則·농수성 식품유지과장, 市田浩恩·국세청 과세부 주세과장 보좌, 江上幸夫·식품용기환경미화협회 전무이사가 참가하였다.

서두에서는 각 패널리스트가 생활환경심의회 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통산성과 후생성이 포장 폐기물의 재생·처리 비용을 내용물 메이커에 부담을 지움으로써 의견 일치가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농수성과 국세청에서는 독일·프랑스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맞는 독자적인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의견의 차이가 확실해졌다.

농수성의 神村씨는, '소재별로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낭비가 된다'는 점과 '제 3자 기관' 설치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국세청의 市田씨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방식은 참고는 되지만 그대로 일본에 도입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담은 우선적으로 강 상류에서부터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하였다. 또 江上 전무이사는, 기기 메이커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후생성·통산성과 농수성·국세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하여 小川씨는 '작년에 내놓은 산업구조심의회 의 의견 구신(具申)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三本木씨는 '지방과 업계를 연결하는 짜임새를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분류 수거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회의장에서는 고행 연료화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 三本木씨는 '병에서 병, 종이에서 종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플라스틱이라면 유

화(油化)나 종이와 혼합하여 열을 이용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산성의 小川씨도 '분류할 수도 없고 소각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회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여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발전(發電)을, 그리고 적은 곳에서는 RDF(고형 연료화)로 함으로써 사용되어야 할 연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멀 리사이클(Thermal Recycle)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포장의 대부분을 종이로 차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三本木씨는, '종이에서 종이는 제지업계의 용량을 초과해 버린다. RDF나 건설 자재 등 다 용도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시사하였다.

또 후생성의 의견에 이론(異論)을 제창한 市田씨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중앙주류심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神村씨는 '리사이클 단체를 만들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로서는 견해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용기가 병에서 종이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市田씨는 '반환 용기를 남기도록 농수성이 주장하여 그것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고 말하였다. 江上씨는 '병에 대해서는 전부 반환해 가지 않으면 리사이클되지 않아 쓰레기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염려를 시사하였다.

회의장에서는 '버진(Virgin) 원료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분류할 경우에는 업계에 부담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出雲市에서는 회수병인 콜라가 팔리고 있다. 50엔을 보상하면 상점으로 회수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三本木씨는 '자원

이라는 사고방식에서가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후생성의 위상이다'라고 본심을 토로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시민과 의원의 모임이 제안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의 촉진에 연관되는 법제화에 관한 요망서'를 채택하고서 해산하였다.

중국, 포장 품질 인증위원회를 설립 국제 관례에 따른 제품을 승인

작년에 중국 포장업계 제품품질 인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장 제품 인증 조직으로, 중국의 포장업계 지도자 및 전문가, 각 성(省)·시(市)의 포장업계 지도자를 합쳐 삼십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중국포장기술협회 행업부(업계부)에 변공실(弁公室)이 설치되고, 동변공실이 일상 업무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제품 품질의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종의 제품 품질 보증 방법으로, 국제무역을 하는 가운데 다년에 걸쳐 채택되어 온 관습이 있다. 일부 신용이 높은 협회·기관에서 인증 업무는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어 예를들면 유명한 상표의 전기·전자 제품은 모두 국제전공(電工)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지닌 제품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신용과 담보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 관례에 적합한 인증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제품이 국제 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중국은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받아 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수출을 서두른 나머지 외

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검사 보고서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다. 국제적 관례에 따른 포장 제품 품질 인증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중국 포장업계의 품질향상 업무 가운데 가장 급한 용무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1981년도부터 제품품질 인증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 십여년 동안에 많은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수반하는 수요와 비교하여 여전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포장기술협회는 전국포장행업(업무) 제품품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포장 제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전국포장행업(업무) 제품품질인증 변공실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품의 구조, 성능이 선진적이고, 정식 생산 개시부터 이미 1년 이상이 경과 혹은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그에 상응하는 제품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업 표준에 합격해 있을 것
3.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그에 상응하는 품질 보증 시스템 및 유효한 실시 체계, 규정에 합격한 검사 방법이 확립되고, 더구나 사용자로부터 불량 보고가 없을 것
4. 기업의 생산 방식이 환경보호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원재료의 소모가 적으며, 동시에 국가 관계 부문이 그것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도태 제품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제품이 아닐 것
5. 수출·외화 획득 능력이 큰 제품은, 우선적으로 인증을 공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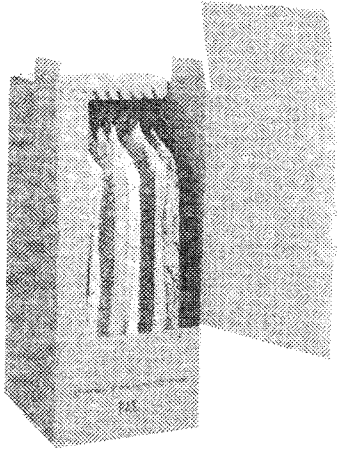
골판지제(製) 행거 케이스 집화포장부문상 수상

쇼와무역은 "파이프가 필요 없는 윈터치식" 전(全)골판지제(製)행거 케이스를 상품화하여 '유리카고'라는 브랜드로 이사·어패럴을 비롯하여 가구 분야 등에 판매하고 있다. 작년에 실시된 제펜 패키징 컨테스트에서 '집화포장부문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얻고 실적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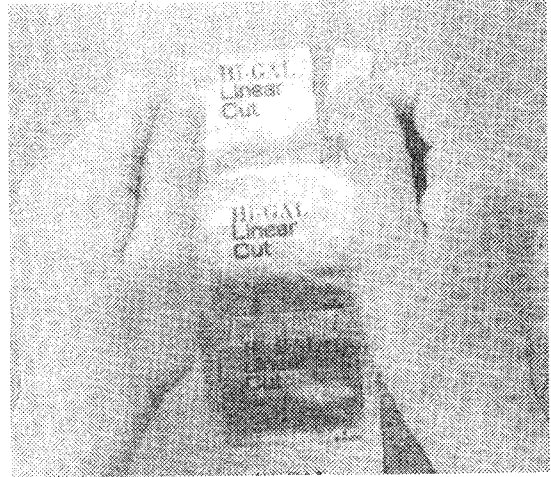
'유리카고'는 한 장의 골판지 시트를 윈터치로 행거 케이스(Hanger case)화한 것이다. 천정면의 절반과 직육면체의 한 면을 2/3 이상 썬기 모양으로 절단하여 개폐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부터 의류를 내고 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행거를 거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골판지 시트에 절단선을 넣어 매다는 구멍으로 하고 그 부분에 행거를 걸게 하였다. 이 경우, 봉상(棒狀)인 것에 거는 것과는 달리 단단히 고정된다. 또 그 열림 및 닫음 부분은 더블 로크(Double lock)를 하여 이것도 단단히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시트 모양의 골판지를 윈터치로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행거 케이스로 제품화한 점이다. 종전에는 플라스틱 혹은 스틸製 파이프를 행거를 거는 부분에 사용하였다. 파이프 및 파이프의 지지(支持) 가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이프 대금과 지지 가공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이 줄고, 케이스 단품(單品)이기 때문에 재고관리의 수고나 파이프를 고정하는 로스(Loss)를 생략할 수 있고, 매다는 구



▲ هنگ거 케이스 '유리카'



▲ Hi-GAL 라인어 컷 필름의 채택이 신장된다.

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운반시에도 هنگ거가 치우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금속 파이프 및 지지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이것은 공업소유권 등록 상품으로 되어 있다.

케이스의 표준 사양은, 1019×4718×444mm이다. 상품 배달용 상자 및 일회용 플라스틱 골판지製の 3타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개폐부는 더블 로크 방식을 채택한다. 케이스 소재로는 고품질 종이를 사용하고 특히 매달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처리가 되어 있다. 또 방습 가공 타입도 마련되어 있다. 양타입 모두 기존 파이프형과 비교하여 상당히 원가 절감되어 있다.

컨베이어 수송도 오사카항 등으로 한신(阪神) 대지진의 영향

한신 대지진은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나, 물류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관서 지구의 물류

기기 메이커는, 공장 등 비교적 손상을 면한 편이어서 오키나 수송기에서는 '加古川공장도 다소의 손상을 입었으나, 조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신 지구에 대한 납품 실적이 많고, 공장 도괴(倒壞) 등도 많아 현재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 고속도로 파손, 도로망의 손상, 그리고 교통 규제 등 때문에 수리하기 위한 차도 현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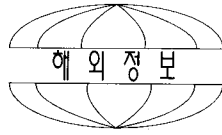
물류에 불가결한 도로망도 완전히 분단되었다. 공장 지대가 집중해 있는 한신 지구는, 43호선 고속도로의 도괴로 상징되는 것처럼 큰 타격을 받아 도로 복구도 지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통이 가능하나, 구급차 등을 우선시키기 때문에 원(遠)거리 수송에는 적당하지 않다. 말하자면 관서, 관동과 서일본 지구가 분단된 형태이어서 당초에는 오사카에서 和歌山으로 우회하여 페리호를 사용하거나 교토에서 山陰 지구로 돌거나

하였다.

또 하나의 간선인 중국 자동차 도로는 1월 27일에 겨우 개통되어 名神 고속도로와 직결하여 큰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당분간은 도로 혼잡이 예상되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神戸항은 부두가 도괴되고 컨베이어 수송 설비가 손실됨으로 인해, 컨베이어 암벽 22개소 거의 모두를 사용할 수 없어 하역 작업이 곤란하다. 동항구에서 컨베이어 화물의 연간 취급량은 3,908만톤(1993년)으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그중 近畿 지방을 향하는 것은 약 2,100만톤이다. 또 오사카항은 12개소의 컨베이어 암벽과 약 7,000m²의 야드가 있어 연간 1,140만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사카 남쪽 항구와 舞州에 약 350,000m²의 야드를 잠정적으로 신설하여 神戸항에서 취급하였던 近畿 방향 컨베이어중 약 1,500만톤, 약 70%를 오사카에서 받아들일 예정이다.

또한 지진 발생후 1주일 동안에



神戸항으로 양륙(揚陸)될 예정인 컨베이어 약 20,000개는 동경항으로 32%, 요코하마항으로 30%, 오사카항으로 25%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 같이 물류 사정이나 교통망은 큰 변화가 여지없게 되어 앞으로 신속한 대응이 요망된다.

개봉하기 쉬운 포장재의 설비 증강 Hi-GAL 리니어 컷 필름

오카다지업은 이지 오픈 필름인 'Hi-GAL 리니어 컷 필름'의 가공 설비를 증강한다. 동 제품의 채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을 실시하는 시기는 금년 이달로 예정되어 있다.

'Hi-GAL 리니어 컷 필름'은, '내용물을 꺼내기가 답답하다' '봉지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찢어져 실패했다' 등, 일부 연포장에서 "개봉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소리에 대응하는 형으로, 3년 전에 개발되었다.

다층 복합 필름의 일부 층에 특수 형상의 절단을 넣어 찢어서 개봉할 때 포장재가 찢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재봉질 땀에 기능을 갖게 한 이지 오픈 필름이다. 복합 재료의 일부 소재를 복합하기 전에 절단가공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방습성, 배리어성 등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노치(notch)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어 개봉 개시부터 내용물을 꺼내기까지 일련의 동작이 원활하여 인쇄 표시와 조합하면 일정한 개소에서 최적한 개봉구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로, 가젯, 약품 사면 밀봉 포장이나 척(chuck) 자루 상부의

개봉 등에서 채택되고 있어 식품 분야를 비롯하여 의약품 관련 분야에서 착실히 그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분야 이외에도 연포장의 "개봉 편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이지 오픈 필름을 시리즈화하고 수요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 흐름에서 이달중에 가공 설비를 증설하여 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개봉 편리성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일본골판지공업회 지난해 약 126억5천만㎡ 골판지 생산

1994년도 골판지의 연간 생산량이 이번에 집계되었다. 일본골판지공업회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94년 1월~12월에 126억 4,972만 3,000㎡

으로, 전년대비 102.6%를 기록하였다. 포장 타분야의 소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골판지업계는 호조의 신장을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93년에 전년(前年)을 웃돈 달이 3,4,8,9,11,12월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94년에는 2월을 제외하고 11개월이 전년을 웃도는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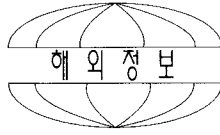
특히 8월의 신장률이 높아 10억 1,486만 1,000㎡로 전년대비 107.7%로 오랜만에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표1) 골판지 생산월보

단위(1000㎡)

년 월	생산수량	전년 동월비	전월비
94년 1월	868,453	102.2	83.7
2월	930,541	99.8	10.7
3월	1,064,633	101.5	114.4
4월	1,103,662	101.4	103.7
5월	999,028	100.7	90.5
6월	1,098,340	103.1	109.9
1~6월	6,064,657	101.5	
7월	1,096,324	101.8	99.8
8월	1,014,864	107.7	92.6
9월	1,080,463	103.8	106.5
10월	1,124,813	101.1	104.1
11월	1,182,920	103.5	105.2
속보 12월	1,085,682	104.6	91.8
7~12월	6,858,066		
94년합계	12,649,723	102.6	

*속보 : 소비+출하
(통산성 생산동태 통계에 의함)



최대 규모의 제지 설계 浙江省의 원활한 추세로 도입이 진행

중국 국내 최대의 규모이고 기술 수준도 최고 수준의 제지 설비가 浙江省의 원활한 추세로 설치되어 가고 있다. 동설비는 2억 5,700만 마르크를 들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4개 회사,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으로부터 도입한다. 동 설비가 가동되면 평판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의거하여 인쇄업, 포장업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日, 미쓰코시백화점 '대중화' 선언 자체브랜드화 간이포장 채택

포장에 있어서 미쓰코시백화점은 선물용품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면 포장을 해 주지만 일반상품은 고객의 양해를 얻어 포장지와 포장백을 생략하고 봉인대신 새로 도입한 테이프를 붙여준다.

미쓰코시의 포장지 디자인은 지난 51년 서양화가가 제작한 것으로 40여년동안 이 백화점의 열골역할을 해오면서 선물용품은 미쓰코시의 포장지로 싼것을 최고로 여길 정도로 포장신화를 만들어 냈다. 미쓰코시가 이같은 신화를 깨트린것은 최근 일본 백화점업계에서 연말등 수요가 급증하는 기간에는 간이포장을 해주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들도 명절 이외에는 상품을 포장해주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연간 3천8백만개분의 포

장지와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는 이 백화점은 이로인해 연간 1억엔정도의 포장비를 줄일수 있게 됐다.

미쓰코시는 이와함께 최근 몇년간 계속된 엔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1.5배 넘는 브랜드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쓰코시는 PB상품의 도입과 '내외가격차' 시정으로 품목별과 가격양면에서 소비자들의 백화점 이탈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백화점은 이같은 경비삭감과 현장중시 영업정책에 의해 지난해 경상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쓰코시는 이밖에도 남성주도형 컨셉으로 영업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던 신주코 남관을 리뉴얼해 여성 중심의 20~3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전문점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숙녀용품 중심이었던 본관은 신사용품을 포함한 종합백화점으로 개장하는등 발빠른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제일의 백화점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면서도 백화점업계 불황의 파고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미쓰코시백화점의 시카구라사장은 '미쓰코시는 덩치가 큰 배와 같아서 방향전환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전화하면 신속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